

부록

『인간·환경·미래』 제16호 논문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에 대한 17세기 중국서문의 출처, 「『명리탐』에 소개된 서구 논리학의 특성」의 관련 부록(제 16호, 195쪽~201쪽)으로 수록한 코임브라대학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라틴어본 서문과 중국어본 『명리탐』 서문의 완역문이다.

동·서의 학문 교류 전통을 연구하는 데에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해 부록으로 실는다.

[부록1: 『범주론』 코임브라 주석본 서문 번역¹⁾]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라틴본 번역의 범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① 역자들은 중역본 서문 전체 국역본은 [C1], [C2] … [C14]으로 표기된 14개의 단락으로 나누고, 이들 각 단락의 주제내용에 해당되는 라틴본 서문 또한 [L1], [L2] … [L14]로 구분하였다. 그러므로 [C1], [L1] 등 단락표기부호의 삽입과 단락의 구분은 모두 역자들에 의한 것이다. 단, 중역본은 [C1], [C2] …등에 따라 단락의 일련번호가 뒤섞이지 않고 순차적으로 진행되지만, 라틴본에서는 가능한 한 중역본의 해당주제 대응 부분을 찾아서 [C1]에 [L1]을 대응시키고, [C2]에 [L2]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표기한 것임을 밝힌다. 이는 내용대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 라틴본 원문의 순서는 [L1], [L2] …로 진행되지 않는다. ② []의 기호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두 역자가 필요에 의해 번역문에 추가 삽입한 것임을 밝힌다. 예를 들어 주제가 구분되는 단락의 제목을 붙여 [] 안에 추가한 것은 역자의 것이다. 각주로 보충된 것 또한 역자의 것이다. ③ 논증 구조, 또는 주장과 반론의 세부주제를 구별하기 위해 역자는 단락 내부에 1), 2) 혹은 A), B)나 a), b) 등의 기호를 첨가하였다. ④ 특별히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문장은, 그곳이 중역본에서 나오는 내용과 대응하는 부분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역자가 부여한 것이다. ⑤ 『인간·환경·미래』 제16호에 실린 논문에 인용된 라틴본의 한글 번역에 비해서, 이곳의 한글 번역에 수정되고 보충된 곳이 있음을 밝힌다.

스타게이로스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 대한 주석

서문

『범주론』의 저자와 제목에 관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다양한 작품²⁾을 처음으로 접하는 이 저서[즉 코임브라 판본]에서 그의 사상과 저서(cum docendi tum scribendi ratio)에 관해 다루어야

1) 라틴본 서문의 한글 번역은 허민준(서울대학교 서양고전학 협동과정)이 작업한 것이다. 원문의 출처는 *Commentarii Collegii Conimbricensis E Societate Iesv, In Vniuersam Dialecticam Aristotelis Stagiritae Mogvntae: ex Officina Typographica Ioannis Albini 1606*, pp. 226-229이다.

2) 즉 논리학을 이루는 저서.

할 주제 중, 일부는 논리학(dialectica)에 대한 서문(initio)에서, 그리고 다른 일부는 자연학(physica)을 다루는 서문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졌다. 따라서 각 저서에 관한 설명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만 취급하더라도 충분할 것이다. 즉 1) 누가 이 [논리학] 저서들을 작성했는지 2) 그리고 각 저서의 제목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것이다.

[1 : 저자는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즉 이 저서는 진품인가?]

[L3] 보에티우스에 따르면, 이암블리쿠스가 [저서의 진위에 대해] 의심을 제기 하였고 무명의 몇몇 저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게이로스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본 저서의 저자라는 사실은 소요학파의 모든 철학자들이 만장일치로 인정하는 바이다. 보에티우스는 이런 사실을 3개의 논증을 통해 증명한다. a) 첫 번째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른 저서에서 내세운 주장이 본 저서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b) 두 번째로 본 저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체의 특징인 간결함과 미묘함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c) 세 번째로 만약 그가 이 저서를 구상하지 않았다면(aliter) 그의 이론(opus)은 미완성으로 남아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L3bis] 즉 만약 삼단논법(de syllogismis)에 대한 저서를 쓸 의도가 있었음에도 삼단논법을 구성하는 요소인 명제에 대한 저서, 혹은 [명제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단어에 대한 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범주론』의 진위에 대해 논의하는 이유]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범주를 다루는 저자들의 작품들이 과거에 존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저서의 진위에 대한 오류를 범하였다. [L2] - 하지만 우리는 존재하는 모든 것(omnium ens)을 처음으로 10개의 종으로 나눈 타렌트인 아르키타스(Archytas)를 [앞서 언급한 저자들과] 구분해야 한다. 왜냐하면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가 『진실에

대한 고찰』 제 4장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도리안어³⁾로 작성된 그의 저서는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 즉 아리스토텔레스 [강의를] 수강했던 테오프라스토스(Theophrastus), 에우데무스(Eudemus), 에레시우스인 포에니아(Phoenia Eressius) 또한 스승을 모방하여 최상위의 10개의 류에 대해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프로디시아스인 아드라스투스(Adrastus of Aphrodisias) 또한 흔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로 간주되는 동일한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다. 하지만, 암모니우스(Ammonios Hermias)에 따르면, [시리아에 위치한] 필라델피아의 한 도서관에서 [제목만 동일하되 내용은 다른] 두 권의 『범주론』이 발견되었는데 그는 우리가 [지금 학습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저서만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라고 주장한다.

[2 : 책 제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많은 이들이 여러 종류의 제목을 제시하였지만 포르피리우스에 따르면 이 작품의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제목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테고리(Aristotelis *Categoriae*)』이다.

1) 포르피리우스에 의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일상용어였던 [카테고리아]를 철학용어로 사용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⁵⁾— 왜냐하면 “카테고리아(kategoria)”는 재판소에서 고소할 때 쓰이는 용어로 “고발”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katēgorō*는 “나는 고발한다(*accuso*)”를 의미한다. — 포르피리우스에 따르면 유명한 철학자들은 생소한 철학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거나, 일상용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면서 기존의 의미만 수정하곤 한다.

3) 도리안어는 여러 그리스어 방언 중 하나이다.

4) 즉 아르키타스의 저서는 현존하는 이유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과 혼동될 위험이 없다는 말이다.

5) 직역: “아리스토텔레스는 통상적으로 쓰이는 이 용어를 [철학 학교인] 튀케이온에 들여보냈다.”

2)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른 해석도 있다. [L1] 어떤 이들은 동사 *categorō*가 “술어를 부여하다(*praedico*)”, “진술하다(*enuntio*)”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명사 *categoria* 또한 사물에 대한 진술(*praedicatio*), 또는 발화(*enuntiatio*)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더불어 사물이 총 10개의 류로 나누어지고, 자연의 순서에 따라(*iuxta naturae ordinem*)⁶⁾ 위에 위치한 것들이 아래에 위치한 것들에 대해 술어로 취급되는 이유로 이 [10개의] 류가 그리스어로 “카테고리”[즉 술어]라고 불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라틴어로는 *praedicamenta*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라틴 저자들 중에서도 보에티우스가 고안한 것으로 보인다. *Categoria*, 또는 *praedicamenta*라는 용어는 때로는 [상대적으로] 상하의 위치를 가지는 사물의 관계를 의미하고 때로는 각 범주의 최상위에 위치한 류만 의미한다. 논리적인 관점에서 (*formaliter*) *praedicamentum*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포리아를 다루는 부분에서 설명할 것이다.⁷⁾

이 저서의 대상, 학습 순서, 용도 및 내용의 분류

[3 : De materia : 대상]

이 저서가 여러 범주(*praedicamenta*)를 취급한다는 점은 모든 주석가들이 전적으로 인정하는 하는 바이지만 범주의 주 대상(*materia*)이 단어(*voces*)인지 혹은 사물(*res*)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Pro. I : 범주의 대상이 사물인 이유]

6)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 Δ 11, 1019a1-4 참고. 자연 (본성) 또는 실체의 순서는 어떤 실체가 다른 실체보다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선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동물과 사람을 비교했을 때 동물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에 전자는 후자에 비해 존재론적인 관점에서 선행하는 것이다. 더불어 양자는 류와 종의 관계를 가지며 전자가 후자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자의 술어로 취급된다. (“사람은 동물이다.”)

7) 밑의 4.1.3 참고.

아베로에스(Averroes)와 카이타누스(Caietanus), 그리고 아비센나(Avicenna)는 그의 논리학 저서의 서문에서 [범주의 대상은] 사물이라고 주장한다. 1) 첫 번째 이유는 [이 저서가 범주를 구성하는(coalescunt) 것들을 다루기(disseritur) 때문이다. (적어도 이 저서가 범주를 취급한다면 말이다. (tractatus est de praedicamentis)) 그런데 범주들을 구성하는 것(coalescunt)은 바로 사물들(res)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류(genera), 종(species), 그리고 개체(individua)라고 명하는 것은 단어들이 아닌 사물들이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이유는 속성(proprietas)을 드러내는 것들을 다루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별적인 범주가 지칭하는(assignantur) 속성은 단어가 아니라 사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이야말로 [이 저서의] 주요 주제(subiectum)인 것이다.

[Contra. II : 범주의 대상이 단어인 이유]

반대로 알렉산더(Alexander of Aphrodisias), 심플리키우스(Simplicius), 암모니우스(Ammonius hermius), 포르피리우스(Porphyrus), 시리아누스(Syrianus)와 보에티우스(Boethius)는 [이 저서의] 주 대상(materia)은 단어(voces)라고 가르친다. 왜냐하면 『범주론』 4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범주들을 나눌 때 단어들을 통해(per voces) 분류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즉 그는 “결합 없이 말해지는 것 중 어떤 것은 ‘실체’, 어떤 것은 ‘양’, 어떤 것은 ‘질’ 등등을 의미한다”⁸⁾라고 주장한다.

[Magisterial determination. 코임브라 라틴 서문의 저자의 입장 : 앞의 상반된 두 의견은 양립 가능하다]

A) 우리는 이 두 번째 입장이 진실에 더 가깝다고 본다.

B) 다만 본 저서가 여러 범주의 구성 요소(quae praedicamenta constituunt)인 사물(res)에 대해서도 부차적으로 논한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 한에서

8)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1b25.

말이다.

1) 이와 같은 우리의 논박(resolutio)의 첫 주장은 (즉 A)은 다음과 같은 논거에 의거하고 있다.

a) 첫째로 논리학(Dialectica)은 말(sermo)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학문(universa...scientia)이기 때문에 “논리학”의 그 어떤 분과도 말(sermo), 특히 변론의 내적인 요소(maxime ad internum)를 주 대상으로 삼는다.

b) 둘째로 이 저서는 명제(propositiones)와 삼단논법(syllogismos)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의 단어(elementa)⁹⁾들을 가르친다. 그런데 명제와 삼단논법은 단어가 의미하는 사물(rebus significatis)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가진어들(verbis significantibus)로 구성된다. 따라서 이 저서의 대상은 단어들이었다.

2) [우리 논박의] 두 번째 논거 [즉 B]는 바로 앞서 언급한 주장 [즉 A]에 의거하고 있다. 즉 만약 단어가 의미하는 사물을 보지 못한다면(nisi aliqua rerum significatarum declaratione) 우리는 그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잘 이해할 수 없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장 뒤에 위치한 여러 장에서 바로 이런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그는 “실체”, “양” 등을 설명하면서 이것들이 바로 [사물인 “실체”, “양” 등을] 의미하는 최소 단위의 단어(vocabula simplicia)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Refutatio. 앞서 언급된 주장에 대한 세부적인 반박]

이런 논거에 의거해, 첫 번째 주장 [즉 “I : 범주가 사물을 다루는 이유”] 이 두 번째 주장 [즉 “II : 범주가 단어를 다루는 이유”]에 상반되는 입장을 취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반박이 가능해진다.

9) 즉 명사와 동사이다.

1) 왜냐하면 [첫 주장의] 첫 논증에서 우리는 『범주론』이 주로 사물(res)을 다룬다는 주장은 인정하는 바이지만 전자들이 [사물로써] 탐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부정한다. 반대로 [이 저서는 사물들을] 뜻하는 기호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데(sed de signis, quibus exprimuntur) 이 기호들은 “류(genera)”, “종(species)” 등의 용어로도 명해진다.

2) 우리는 [첫 주장의] 두 번째 논증 또한 부정한다. 이 논증에 따르면 [이 저서의] 주 목적은 사물을 속성(proprietas)을 위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 따르면, 최소 단위의 단어들(verba simplicia)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사물들이 지닌 본성(partes essentiales)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지닌 속성(proprietas)을 통해서도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저서가 사물의 속성(rerum proprietates)뿐만 아니라 단어의 속성(verborum proprietates) 또한 다룬다는 것을 덧붙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5장에서 “실체(substantia)¹⁰⁾의 고유한 속성(proprium substantiarum)은 ‘이것(hoc aliquid)’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이다.¹¹⁾ 이런 주장은 [이 맥락에서 substantia를] 단어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14 : 저서의 위치. 철학의 대표 분과 중 어느 곳에 속하는가?

[L4] [철학의 여러 분과 중 이 저서가 갖는] 위치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저서는 철학의 대표적인 분과들¹²⁾, 또는 논리학에 속한 분과들¹³⁾과 연관을

10) 즉 substantia라는 단어.

11)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 3b10.

12) 즉 형이상학, 수학, 논리학.

13) 필자의 논문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에 대한 17세기 중국 서문의 출처”, 『인간환경미래』, 2016년, 봄 제16호, 182~183쪽을 참조하라.

가진다. 1) 전자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저서를 최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과에 배치한다. 이 자리는 바로 “형이상학”의 자리이다. [이들은 이 저서가 이 분과에 속한다고 본다]. 2) 다른 사람들은 이 저서가 학문의 체계에서(in artium ordine)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고 모든 학문(omnes artes)에 다 같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Pro. 4.1 : 첫 번째 입장, 즉 논리학은 형이상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증]

첫 번째 입장을 취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펼친다.

1) [L5] [4.1.1] 첫째로 속성의 관점에서(ex propriis) 존재하는 것(ens)은 형이상학(Metaphysica)만이 적합하게 다룰 수 있다. 따라서 [형이상학만이] 이 저서에서¹⁴⁾ 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 즉 존재하는 것을 10개의 류로 나누는 일차적인 분류(immediata entis diuisio in decem genera)를 취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약 [존재하는 것의] 본성(natura)을 다루는 것이 어떤 학문의 주제가 된다면 이 본성을 나누는 분류(proxima illius in inferiora partitio) 또한 동일한 학문이 취급해야 할 주제이기 때문이다.

2) [L6] [4.1.2] 둘째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다른 철학자들이¹⁵⁾ 이 저서에서 범주를 체계화(colligunt)하는 이유는 바로 속성을 서술하는 방식(modi praedicandi)¹⁶⁾을 정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은, 포르피리우스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질적인 속성을 서술하는 방식들(in modis essendi)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논리학(logica)이 아닌 형이상학(Metaphysica)에 속하는

14) 즉 『범주론』.

15) 아르키타스를 암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 범주론에 대한 17세기 중국 서문의 출처”, *op. cit.*, pp. 179-80 참고.

16) 또는 “술어적 서술을 하는 방식”.

것이다. 따라서 속성을 서술하는 방식은 전자의 탐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험적 학문(artes)이 [형이상학과 반대로] 선차적으로 형상을 설명하고(a priori arte explicetur forma), 부차적으로 원리를(a posteriori fundamentum) 설명한다면 이런 학문은(artes) [자연이 취하는 순서와] 상반되는 순서를 취한다.¹⁷⁾ 하지만 원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형상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3) [L7] [4.1.3] 세 번째로 논리학자(dialecticus)가 술어의 대상이 질적인 속성(qualia sint materialia praedicata)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를 서술하는 형식(formales)이 서술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분류를 탐구하는 것은 [논리학이 아니라] 형이상학과 관련이 있다.

[Contra. 4. 2 : 두 번째 입장, 즉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증]

[L8] 범주에 대한 탐구가 단 하나의 학문에 국한된다는 의견을 거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논증을 펼친다. 사물을 나누는 여러 류(genera)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나 과목(scientia uel ars)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어떤 학문이나 과목이든 범위가 정해진 대상(carta pars)을 취급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을 포괄하는 다양한 범주(categorias)에 대한 탐구는 단 하나의 학문의 주제가 아닌 여러 과목의 주제가 되는 것이다.

[magisterial determination. 4. 3 : 코임브라 판본 저자의 입장]

[L9] 하지만 저명한 해설자들에 의하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범주(praedicamenta)를 형이상학 및 논리학적 관점에서 두루 취급할 수 있다고 만장일치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확증하고 [앞서 언급한] 서로

17)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 『자연학』, 184a16-b14 참고.

상반되는 주장을 완화하기 위해선 『범주론』에서 취급되는 사물(res)은 세 가지 관점에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1) 첫째로 본성(natura)의 관점에서 사물을 고려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첫 번째 범주의 관점에서 실체의 본성(natura substantiae), 육체의 본성(natura corporis) 등을 논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2) 둘째로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in essendo) [사물은 보편적(universales)이거나 개별적(particulares)이다. 다시 말해 보편적인(communia) 것이 개별적인 것을 포함하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뜻이다.

3) 셋째로 [이 사물들은] 명제에서(in enuntiatio) 주어나 술어에 해당할 수 있다.

[L10] 1) 첫 번째 관점은 그 어떤 특정한 학문만의 관점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학문(omnium realium)의 관점에 해당한다. 이것은 두 번째 입장 [즉 앞서 언급한 4.2]이 증명해 주는 바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문이 술어에 대한 이론(doctrina praedicamentorum)을 취급한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술어(praedicamentum)는 사물의 개별적인 본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속한 류 또는 종과 맺는] 관계(series)와도 연루되기 때문이다.

2) 두 번째 관점은, 첫 번째 입장에서 제시된 논증이 증명한 것처럼 [즉 앞서 언급한 4.1] 전적으로 형이상학에 상응한다.

3) 세 번째 관점은 논리학(Logica)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범주를] 술어적 서술(praedicatio)로 취급하는 관점(consideratio)은 논리학(dialectica)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관해선 그 누구도 이견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번째 관점이 논리학 관점을 따른다는 사실은 세 번째 주장 [즉 위의 4.3의 3]이 명백히 보여주는 바이다.

[Refutatio. 위의 4.1, 즉 논리학은 형이상학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한 반박]

[L11]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자들의 논증에 관해서는 다음의 답을 제시할 수 있다.

1) 즉 첫 번째 입장 [즉 4.1.1]의 첫 논증은 우리의 주장에 전혀 반하지 않는다.

2) 두 번째 논증 [즉4.1.2]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답을 제시할 수 있다. [어떤] 이론을 설명할 때 교육적인 순서를 고려해, 종종 불가피하게 아직 해명하지 않은 원리(fundamentum)를 전제로 삼고 탐구 대상(forma)의 활용(vis)과 작용(munus)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파벳을 익히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관찰할 수 있는데 그들은 문자의 본질(natura)은 소홀히 하고 단지 그 활용(virtus)과 모든 기능(potestas)을 먼저 습득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논리학자(logici) 또한 형이상학 학자(Metaphysici)가 다루는 근본적 원리(fundamentum)를 전제로 삼아 술어의 활용(vis praedicationum)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3) 세 번째 논증 [즉 4.1.3]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논리학자(Dialecticus)의 임무는 사물들의 여러 류(genera)를 술어와 주어의 관점에서 논하는 것인데, 이는 사물들 그 자체를 앞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물을 논할 때 그것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 여러 방법(ut mediis abundet)을 터득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입장 [4. 2 : 논리학은 모든 학문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증]에 대한 반박은 이미 해결되었다.

[5 : ordo. 『범주론』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 중 몇 번째로 읽어야 하는가?]

[L12] 철학의 대표적인 분과들과 비교했을 때 [이 저서가] 가지는 위치(ordō)에 대한 논의는 접어두고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속한 분과들과 비교했을 때 이것이 가지는 순서(ordō)에 대해 살펴보자. 이 순서는 우리가 지성의 활동[in operationibus mentis]을 관찰할 때 발견하는 순서와 동일하다.

1) 즉 가장 단순한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지적 활동의 첫 단계인데 이 단계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최소 단위의 단어들을 여러 종류로 분류하는 범주론의 이론(*doctrina*)이기 때문이다.

2) [여러 단어를 서로] 결합하거나 분리하는 지적 활동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다루는 저서가 바로 [명사와 동사로 구성된] 진술을 다루는 『명제론(*De interpretatione*)』이다.

3) 이성적 사유(*ratiocinamur*)는 세 번째 활동에 속하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것이 바로 추론(*consequentiae*), 논증(*argumentiae*)과 삼단논법(*sylogismi*)을 구성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분석론(*Analytica*)』과 『변증론(*Topica*)』이다.

[6 : *utilitas*. 이 저서의 용도는 무엇인가?]

[L13] 이와 같은 이론(*doctrina*)의 유용성(*commoditas*)과 용도(*utilitas*)는 논리학의 모든 분과에 적용된다. 즉 류, 종, 차이의 체계를 통해 1) 분류(*divisio*)와 2) 정의(*definitio*)를 구현하는데 아주 유용한 요소들을 제시한다는 것이고 3) 더불어 논증(*argumentatio*)을 해야 할 경우 그 어떤 사물을 다루더라도 본성(*natura*)과 속성(*proprietas*)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7 : *division in chapter*. 이 저서는 몇 부분으로 나누어지는가?]

[L14] 이 저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즉 1) 『범주론 전서(*ante Praedicamenta*)』, 2) 『범주론(*Praedicamenta*)』, 3) 『범주론 후서(*Post Praedicamenta*)』가 바로 그것이다. 첫 번째 부분은 네 개의 장을 포함하고, [저서의] 핵심인 두 번째 부분은 다섯 개의 장, 그리고 순서와 용도, 그리고 중요성이 가장 부차적인 세 번째 부분은 첫 번째 부분과 같이 네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록2: 『명리탐』 서문 번역¹⁾]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중역본 번역의 범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① 중역본 서문 전체 국역본을 [C1], [C2] … [C14] 으로 표기된 14개의 단락으로 나누었다. [C1] 등의 단락표기부호의 삽입과 단락의 구분은 모두 역자에 의한 것이다. 라틴본과 중역본의 해당주제 내용부분을 찾아서 각각 [C1]에 [L1]을 대응시키고, [C2]에 [L2]를 대응시키는 방법으로 표기하였는데, 단 라틴본 [L11]에 대응하는 내용은 중역본에서 찾을 수 없기에 [C11]의 단락은 표기되지 않았음을 밝힌다. ② [] 기호는 번역자가 필요에 의해 번역문에서 단어나 구절, 혹은 역주를 보충할 때 사용하였다. 주제가 구분되는 단락 위에 제목을 붙여 [] 안에 굵은 글씨체로 추가한 것 또한 역자의 것이다. ③ 단락 안의 세부 주제를 구별하기 위해, 역자는 단락 내부에 1), 2) 등의 기호를 첨가하였다. ④ 중역본의 번역에서 () 기호는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활용되었다. 첫째는 ‘십륜(十倫)’과 같이 ‘한자발음(한자)’로 병기할 때, 둘째는 ‘모든 있는 것들(萬有)’처럼 ‘한글 뜻풀이(한자)’로 병기할 때이다. 때로 기호 ()안에 라틴어가 병기된 것은, 모두 역자에 의해 삽입된 것임을 밝힌다. ⑤ 『인간·환경·미래』 제16호에 실린 논문에 인용된 중역본의 한글 번역에 비해서, 이곳의 한글 번역에 수정 보충된 곳이 있음을 밝힌다.

『명리탐(名理探)』 십륜(十倫) 권지일(卷之一)에 대한 주석

전체 서문(總引)

[책의 제목과 저자에 대하여]

[C1] 십륜(十倫)이라고 한 것은, 서양에서 말하는 카테고리(加得我利亞)이다. 그 이름을 가지고 번역하면, ‘칭위(稱謂: 호칭으로 일컫는 것)’이 되고, 그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면, ‘모든 사물본성의 위와 아래에 [해당하는] 여러 호칭의 위치(凡物性上下諸稱之位置)’가 된다.

1) 중역본 서문의 한글 번역은 엄정삼(인하대학교 중국학연구소)이 작업한 것이다. 원문의 출처는 傅汎際 譯義, 李之藻 達辭 『名理探』,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65, pp. 289-291이다.

[C2] 아르키타스가 ‘모든 있는 것들(萬有)’을 열 가지의 ‘지극한 종(至宗)’으로 처음으로 나누어 십륜(十倫)을 세우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논의를 부연하면서, 고금의 이치를 궁구하는 자(窮理者)들은 모두 그것을 따르게 되었다.

[C3] 원래는 모두 삼통(三通)[역주 : 三通은 범주론, 명제론, 분석론 등을 합하여 이르는 말임]에 근거하여 ‘명오(明悟)[분명한 앎]’의 원칙과, ‘추변(推辯)[미루어서 가면서 말로 따져서 밝힘]’의 원칙을 갖추는 것이었다.

[십륜은 논리학과 관련을 가지는가? 형이상학과 관련을 가지는가?]

[C4] 그런데 이 책을 두고 초형성학(超形性學)[역주 : 메타피지카를 뜻함]의 일 분과가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한 학문에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이 그것을 가지고 ‘추변(推辯)’의 방법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십륜이 형이상학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C5] 이것이 초형성학의 한 분과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 초형성학은 ‘있다고 하는 것(有也者-존재)’의 ‘총체적인 본성(總性-natura)’을 헤아리는 것에 달려 있기 때문에, ‘있는 것(有也者)’을 기본(本界)으로 삼아 그에 따라 모든 있는 것들(萬有)을 분석(分析)하여, 가장 지극한 열 가지 종(宗)을 확정한다. 그런데 본성의 이치(性理)를 추측(推測)하려면, 반드시 본성이 ‘나뉘는(剖析-divisio)’ 곳을 헤아려야 한다. 따라서 ‘쪼개어 나누는 것(剖析)’이야말로 추측의 요체다.

[C6] 다음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물(物)의 칭위(稱謂)가 무엇인가(何若)

[역주 : 직역하면 ‘무엇과 같은가’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십륜(十倫)을 정하였는데, ‘칭위(predicare)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반드시 ‘있는 것(有也者)이 무엇인가’에 나아가서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있음(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칭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실려 있기(載) 때문이다. 그러므로 ‘있음(有)이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일은 본래 초형성학에 속하므로 칭위(稱謂)가 무엇인지 추측하는 일도 초형성학의 논의에 속한다는 것이다.

[C7] 또한, 명리탐(名理探)은 각 사물(物)의 ‘질적으로 있음(質有-질적인 특성)’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模義)[역주 : 즉 모양 혹은 형태를 뜻함]를 추측하여 추론의 제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범주(物倫)의 다소(多少)[역주 : 몇 개인지를 뜻함]와 어떤 본성(性-natura), 어떤 속성(情-proprietas)인지를 탐구하는 것은, 명리탐의 본래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초형성학과 관련된 것이다.

[십륜이 논리학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C8] [명리탐이] 단지 어떤 하나의 학문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렇게 말한다.] 모든 각각의 학문은 나누어서 논하자면, 각각 연구되는 고유한 대상(專質-matterium)과 지향하고 있는 고유한 영역(專界)이 있어서, 각 륜(倫)의 본성을 총체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십륜(十倫)의 논의만이 만물의 범주를 총괄하여 그것을 분석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서, 실로 여러 학문이 모두 그것에 바탕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어찌 어떤 하나의 학문에만 관계되겠는가.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저서의 저자의 입장: 십륜은 형이상학과 논리학을 모두 다룬다]

[C9] [이상의 논의를 살펴보고 내린] 올바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십륜(十倫)의 논의는 또한 명리탐(名理探)과 관련되고, 2) 또한 초형성학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그 의미는 같지 않다.

각 범주의 사물을 논하려는 모든 논의에 다음의 세 가지가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1) 첫 번째는 그 본성(本性)을 논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자립자(自立者)[역주 : 우시아의 번역어이다]와 형체자(形體者)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본성인지 추측하는 것이다.

2) 두 번째는 초유(超有)[역주 : 있음을 초월하는 것을 뜻함]를 논하는 것으로, 어떤 하나의 이치를 벗어나는 것을 각각 들어 [논하는 것이다.]

3) 세 번째는 각 사물의 모든 칭위(稱) [즉 술어가 되는 것]와 그 바탕(底) [즉 주어가 되는 것]의 용덕(容德) --2) 사물을 부를 때 사용되는 것을 칭(稱)이라 하고, 그 호칭의 대상이 되는 사물을 바탕(底)이라고 한다--을 들어 [논하는 것이다.]

[C10] 본성을 논하는 것들은 어떤 하나의 학문에 구애받지 않는다. 실제 이치를 연구하여 분석하는 모든 학문들은, 모두 그것에서 근거를 취한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주장[여러 가지 학문이 그것을 추변의 방법으로 삼는다는 주장]이 기대고 있는 점이다.

그러나 단지 십륜이, 여러 학문이 그것의 [방법을] 따라서 ‘추변(辯)’하게 하는 것이 되므로, 그것이 여러 학문의 바탕/토대가 된다고만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십륜의 논의가 단지 그 본래 범주의 본성을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성(上性) 하성(下性)의 위치를 칭하는 바를 가리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초유(超有)를 논하는 것들은, 그것이 본래 초형성학에 관계되는데 이것이 첫 번째 주장이 기대는 바이다. 용덕(容德)을 논하는 것이 바로 명리탐의 일에 속한다. 왜냐하면, 모든 추론하여 말로 밝히는 규칙은 그 지향하는 바가 모두 명리(名理)의 학문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2) -- 뒤에 이어지는 문장은 중역본 원문에 삽입된 주이다. 원주에 해당하는 한글 번역은 글자크기를 줄여서 표시하였다.

[C10 bis]³⁾ --이 세 가지 논의는 사물의 이치를 추론하는 것이며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1) 사람(人)을 들어 논하자면,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고 질(質)이 있고 모양(模)이 있어서 그것은 성학(性學), 서양어로 말하면 ‘피지카’가 된다.

2) 종(宗)이 있고, 차이(殊)가 있음을 논하면, 그것은 초형성학, 서양어로 말하면 ‘메타피지카’가 된다.

3) 바탕(底)이 되고 칭위(稱)가 되는 용덕(容德)을 논하면, 그것은 명리탐, 서양어로 말하면 ‘로지카’가 된다. 사람을 두고 ‘추리(推理)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면, 사람은 바탕(底)이 되고, 추리하는 자는 칭위(稱)가 된다. 어떤 갑(甲)을 두고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갑은 바탕이 되고 사람은 칭위가 된다. 나머지는 이것에 준하여 추론한다.--

이 세 가지 뜻에 준거하여 앞의 두 가지 논박을 해결할 수 있겠다.

[C12] 십륜(十倫)의 논의를 다른 여러 논의와 비교하면, 그것을 [배우는 데에서] 급하고 느린 순서는 어떠한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앎을 찾아가는 일(尋知)에는 삼통(三通)이 있다. 하나는 직통(直通)이고, 두 번째는 합통(合通)이고, 세 번째는 추통(推通)이다. ‘직통’은 직접 각 사물의 뜻을 꿰뚫는 것으로 십륜의 위치를 잡아서 모든 사물의 직접적인 뜻을 분석하는 것에 주력한다. ‘합통’은 서양어로 말하면 ‘페르헤르메노티카’로서, 합하여 단정하는 것이며 이것이 주력하는 바는 서로 합하여 문장을 이루어서 주제가 되는 논의를 완성하는 것이다. ‘추통’은 서양어로 말하면 일명 ‘아날락티카’, 일명 ‘토피카’로서, 이것이 주력하는 바는 토론을 추론하여 탐구하여 여러 변론의 규칙을 완성하는 것이다.

[저서의 유용성]

3) [C10 bis] 단락은 -- 뒤에 이어지는 문단 전체가 원주에 해당하는 곳이므로, 모두 글자크기를 줄여서 표시하였다.

[C13] 모든 변론이 이 학문에 기대는 바는 매우 크다. 아마도 이 책이, 종(宗)과 류(類)의 차이를 분별하게 하고[분류하게 함], 명오(明悟-mens, 인텔렉투스)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을 완성하여 갖추도록 하며[정의하게 함], 또한 각 사물의 본성과 각 본성의 속성(情)을 해석하여, 여러 학문에게 추론의 이치를 갖추게 하기[추론하게 함] 때문일 것이다.

[저서의 구성: 어떤 편장으로 나누어지는가?]

[C14] 이 책은 주요하게 다음의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십륜(十倫)의 선론(先論)으로 모두 4편이다. 둘째는 십륜의 논의로 모두 5편이다. 셋째는 십륜의 후론(後論)으로 역시 모두 4편이다.